

“10년간 군수 선거만 9번 치러야 하나”

홍이식 화순군수 구속에 지역사회 ‘충격’ 직위상실형 확정판 또 선거...지역민 답답

지난해 재선거로 당선됐던 홍이식 화순군수가 구속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 사이에 총 4명의 군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데다 홍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화순군민들은 민선 5기 동안 9번째 선거를 치러야 하는 ‘오명’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은 6일 선거를 전후해 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로 홍 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는 지난해 4월 27일 치러진 보선을 앞두고 건설 자재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고 당선된 뒤에도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군수가 구속된 것은 임호경 전 군수와 전형준 전 군수, 전완준 군수에 이어 4번째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부부군수’, ‘형제군수’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화순군은 지난 10여년 간 이들 형제군수(전형준-전완준), 부부 군수(임호경-이영남)가 ‘군수 자리’를 놓고 집안 대결을 하면서 민심이 갈라졌고, 이 과정에서 군수 3명이 낙마하는 오명을 쓴 지역이다. 이 전 군수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 또는 직위상실형을 받았다.

2002년 임호경 전 군수는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

직을 잃었고, 이어 임 전 군수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가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군수직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형준 전 군수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전 전 군수도 취임 한 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군수직을 사퇴했고 이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동생인 전완준 전 군수가 당선됐다.

전완준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중 출마 끝에 재선에 성공하고도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잃었다. 이처럼 양 측 집안이 수차례 군수자

리를 놓고 ‘리턴매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사태가 빚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이전투구’로 치달았으며, 이 때문에 지역민심도 크게 갈라졌다.

이러한 두 집안 대결을 종식하면서 지난해 4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홍 군수는 취임 이후 줄곧 지역통합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자신도 직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

다섯 차례 지방선거가 치러진 민선 1~5기 사이 화순에서는 총 8차례의 군수 선거가 실시됐고, 홍 군수가 또 다시 직위상실형을 받게 되면 화순군은 군수 선거만 무려 9번을 치르게 된다.

한 군민은 “홍 군수의 말처럼 부정한 거래가 없었기를 바라지만 군수가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만으로도 지역민으로서 답답한 심정”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이식 화순군수가 지난 6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날 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홍 군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홍 군수는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최근 10년 간 화순군수 당선 및 낙마(구속)상황	
2002.6	제3회 지방선거 임호경 군수 당선
2004.1	임호경 군수, 선거법 위반 군수직 상실
2004.6	재선거 이영남 군수 당선 (임호경 전 군수 아내)
2006.5	제4회 지방선거 전형준 군수 당선
2006.6	전형준 군수, 선거법 위반 낙마
2006.10	보궐선거 전완준 군수 당선 (전형준 전 군수 동생)
2010.6	제5회 지방선거 전완준 군수 재선 성공
2011.2	전완준 군수 선거법 위반 낙마
2011.4	재선거 홍이식 군수 당선
2012.12.6	홍 군수 구속 수감

이라며 “화순이 ‘군수들의 무덤’ ‘사고 지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권일기자 cki@/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 아·태 스카우트 총회 광주서 열린다

9월 40개국 1000명 참여

오는 2015년 제25회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총회(Asia-Pacific Regional Scout Conference)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아·태총회에서 제25회 총회 개최지로 광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총

회에는 스카우트 지도자와 청소년 등 40개국 1000명이 참여한다.

2015년 9월께 열리는 총회에서는 스카우트 사업보고, 정책결정, 아·태이사 선출, 신인 회원국 가입, 차기행사 개최지 선정, 지역 문화투어, 광주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시는 이번 총회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맞물려 국제

도시 광주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로 광주시의 발전과 국제화 촉진은 물론 지역문화 관광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李 대통령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돕겠다”

시·도지사 靑간담회...박지사, 베트남 농업기술지원 요청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베트남 친환경 농

업’에 대한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지원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쟁도시인 중국 심천과 일본 동경은 국제스포츠 강국인데다 자국 출신의 FINA(국제수영연맹) 집행위원마져

있어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투표권을 가진 FINA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와 관련해 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984년부터 1992년까지 FINA 집행위원을 지낸 만큼 유대관계에 있는 현 집행위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토록 건의했다”며 “대통령의 협조 서한문 발송, 유치지원 동영상 촬영, FINA 집행위원 청와대 초청 행사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FINA 집행위원들과의 친분은 물론 집행위원을 지냈던 경험을 살려 적극 돕겠다”고 답변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의 베트남 방문 성과를 알리고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베트남의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인류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의 친환경 농업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베트남과의 수교 20주년을 맞아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성공을 위해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요청한 폐(廢)어선 대책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진표기자lucky@/오광목기자 kroh@

나주·화순 국회의원·단체장 직위 모두 ‘흔들’

나주와 화순의 자치단체장·국회의원이 모두 자리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홍이식 화순군수와 임성훈 나주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주·화순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신현범 부장판사는 6일 선거를 전후해 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로 홍 군수에 대해 검

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정 출석에 앞서 홍 군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군수를 구속한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임성훈 나주시장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나주 미래 일반산업단지 조성 업체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과 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산단 조성과정에서 임 시장의 개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과 나주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배기운 국회의원의 직위도 위태롭다. 배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중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배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무효된다. /최권일기자 cki@/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김영란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식인 국민권익위원장장에 이성보(56·사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기도, 서울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대법관 물망에도 올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엠블호텔 여수’ 특1급 호텔 인증

광주·전남 4번째

6성급으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동안 전 세계 귀빈들이 묵었던 ‘엠블호텔 여수’가 최근 특1급 호텔로 공인됐다.

엠블호텔 여수는 최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전남관광협회 주관으로 시행된 호텔 등급심사결과 특1급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광주·전남의 특1급 호텔은 광주의 라마다플라자광주와 홀리데이인광주, 전남의 호텔현대목포 등 모두 4개로 늘어났다.

엠블호텔 여수는 시설과 서비스 면에서 서울권 특급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특1급 호텔인증증을 받았다.

대명레저산업이 건립한 엠블호텔 여수는 여수박람회 기간 중



안 반기문 UN사무총장과 3개국 대통령, 유럽과 중동 6개국 왕족 등이 묵으면서 ‘별들의 숙소’로 떠올랐다.

강영철 호텔 총지배인은 “호남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년 개장할 일산 2호점과 연계해 남해안 관광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호텔로 도약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주시 세계인권선언 기념 오늘부터 곳곳서 기념행사

광주시가 ‘민주·인권 도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에 맞춰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광주시는 “10일부터 22일까지를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인권 영화제를 비롯한 인권논문 학술대회, 인권길레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행사 첫날인 10일 오후 6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광주시와 교육청,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인권회의의 공동으로 40여개 인권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세계인권선언 제64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시는 또 광주 인권·평화교류 거버넌스사업 결과 발표회(11일 전남대)와 인권단체협력사업 결과 발표회(12일 광주시청), 광주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제, 인권논문 학술대회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한다. /박진표기자lucky@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천·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반영구적입니다.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형)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www.newskorea.or.kr

당신은 카프카넷?

“뉴스 무단 사용은 이제 그만!”
뉴스도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내용은 손쉽게 카피할 수 있어도,
저작자의 맘과 열정까지 카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